

## [ 종합·해설 ]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 농업 소득 지켜낼 거래망 구축해야

해남 참다래유통사업단은 농장투자를 줄이는 대신 참다래 가공공장과 직매장을 신설, 부가가치를 높였다. 또 농장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매장으로 가는 두개의 중간단계를 줄여 원가절감에 성공했다.

특히 해남군 670여 키우 재배농가의 유통 뿐 아니라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의 키우 수입판매권까지 확보, 지난해 274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참다래 유통망에다 해남 고구마를 얹어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 “농산물 유통 혈류 막혀” 중개상만 배불려

농산물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달리 가격변화에 둔감한 고정된 수요요인과 통제 불가능한 농가생산량, 수입농산물, 기후 조건 등으로 공급이 약간만 변화해도 가격은 그 몇배로 급등락하는 특성을 지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와 관련, 일부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의 혈류가 막혀 있다”고 지적한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이라는 항간의 통념을 비판하면서 “수요는 많다. 다만 시장조사가 불충분해 수요처가 어디인지, 수요량이 얼마인지 알지 못할 뿐이다. 결국 도시민은 배추가 부족한데 배추농가는 밭을 갈아엎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최석진 유통지원팀장은 “농산물 유통개혁은 무엇보다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해 제값받기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농업관측을 강화, 농산물 수급에 대한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산지유통기능을 확대하고 생산자조직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 농산물연합사업단을 포함한 4개 시·군연합사업단을 가동, 농산물 가격인정과 소비자 신뢰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중소 도시지역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과마스마켓을 구축, 직거래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기에 블

## ❸ 시급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기농산물 판매와 유기농 프리자 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장성군 남면 학사농장 강용 대표는 “산지에서 신선농산물 공급을 위한 폴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도입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직거래·소매유통 개선으로 마진 절감

이와 함께 지역체와 농협은 판로확장과 가격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 유통조직의 통합화·규모화를 통해 공동규격 출하와 품질표준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미 FTA 이후 쏟아지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품종 개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물적 유통시설, 수확후 관리체계, 전자상거래망 등 유통 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끝〉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II 현장과 시각 II

### 아직은 샘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



박치경

정부부 차장

“베리 굿!” “원더풀!”

지난 9~13일 서울과 여수 현지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상황을 점검했던 국제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의 일에서 연신 터져나온 찬사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현실상 있는 대안과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IT) 기법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은 7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실사단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여수를 깜짝 방문해 함상 리셉션을 베풀어 실사단원의 신뢰를 높였다. 여수 시민들은 오직 박람회 개최라는 염원 하나로 생업을 멈추고 실사단을 환대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실사를 통해

놀란 이들은 비단 실사단원뿐만 아니었다. 손님을 맞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정부와 전남도·여수시·박람회 유치위원회, 수준높은 시민정신을 발휘한 여수 현지 주민들은 이번 실사에서 숨어있던 우리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한껏 고무됐다. 한 술 더떠 노심초사했던 실사를 대성공리에 마친 덧인지 한 겐에서는 흥분을 가리앉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실사의 감흥을 삭이지 못하고 마치 박람회를 순례라도 잡은 듯들며 있다. 실사가 끝났으니 할 일 다했다며 느슨해지려는 기미도 보인다.

그러나 설부른 축배는 금물이다. 우선 이번 실사에서 침이 마르도록 여수를 칭찬한 실사단원의 면면을 보자. 카트만 실빵 실사단장은 캐나다 출신의 중경 외교관으로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때 캐나다관 설치 책임자로 일한 박람회 전문가. 로세르탈스 BIE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한국을 8차례나 방문해 우리 실정을 꿰뚫고 있다.

루마니아의 안카 안겔 대표는 2005년 일본 아이치 박람회 준비위원회로 근무해 동북아시아 사장을 헌히 맡고 있다. 다른 실사단원들도 무역·통상전문가로 국제관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이번 실사에서 우리에게 건넨 극찬 속에는 외교관이나 국제전문가들이 애용하는 ‘수사’(修辭)가 상당부분 숨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치러낸 훌륭한 실사 결과를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실사를 성공리에 마쳐 여수박람회 개최 스타트가 순조로웠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얻은만큼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할일만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축하 샘페인은 오는 11월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BIE총회에서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여수 코리아”가 올려 퍼진 후 터뜨려도 전혀 늦지 않다.

/unipark@kwangju.co.kr

## 한미 FTA 농업 피해 대책 윤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대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소득보전직불금은 ‘가격이 아닌 기구당 ‘생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은퇴 유도 차원에서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농사일을 그만 둘 경 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소득보전직불 생산액 기준=농림부는 15일 한미FTA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가격에 서 수입(생산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

## 은퇴 고령농 매월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FTA의 영향으로 단순히 쇠고기·돼지고기·감귤 등 피해 예상 품목의 가격이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농가의 실제 생산액이 줄어야 기준으로 지급되고, 은퇴 유도 차원에서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농사일을 그만 둘 경 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소득과 관련된 생산액이 보상 기준으로서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퇴고령농 월 일정액 지급=고령농 은퇴 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우선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70세 이상 고령농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취미·부업농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 어민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된 지난 95년 이후 20년이 지나 첫 수령자가 나오는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제와 연계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경쟁이양직불제’를 보완, 활성화하는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아직 지급액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율리 농림부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65~69세 농민의 은퇴를 돋는 조기은퇴 불금제도,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달마다 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끝〉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드러내고 싶지만 감추고도 싶다

나를 드러내고 싶다. 라디에이터 그림으로 흘러내리는 V형 보노과 날렵한 측면 바디라인은 나만의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내어 준다. 나를 감추고 싶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을 감추어주는 넓은 실내 공간과 고속 주행 시 안정된 편안함까지. 나의 편안함은 감추어도 느껴지고, 스타일은 강조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나를 닮은 차, MY B

光州日報  
창사 55  
1952~2007

www.my-b.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전시장 광주시 서구 회정동 743-1 (062)226-0001 서비스센터 (062)376-3556  
차종 및 정부공인 표준연비 • My B(B 200) 2,035cc, 1,315kg, CVT, 12.8km/l, 1등급(6.0~2,500cc) • 위 연비는 표준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작성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